

# 광주·전남 한나라 당협위원장 경쟁시대

## ‘한진重’ 머리 맞대는 野...야권 통합은?

### 사고지구당 전국 20곳 공모... 석파울제 도입 가능성 영향

### 광주 남구, 함평·영광·장성, 순천, 나주·화순 등 지역선 4곳

한나라당이 광주 남구 등 당원협의 회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사고지구당 20곳에 대해 공모에 나섰다.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출되는 당협 위원장은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할 가능성이 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. 특히 석파울제 도입 가능성이 큰 광주 남구, 함평·영광·장성 지역인 호남과 충청권에도 입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.

당 조직강화특위는 지난 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사고지구당 20곳에 대해 오는 5일까지 공모 공고를 진행하 고 8~10일 사흘간 서류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김문일 조직특위 위원장이 2 일 전했다. 또 조직특위는 17~18일 이틀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

시한 뒤 오는 22일부터는 해당 지역 구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 이다. 조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한 나라당 당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, 신규 입당자는 입당원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당원협의 회는 245곳 중 20곳으로 한나라당이 약세인 호남과 충청이 가장 많지만 서울의 경우도 당협위원장이 의원직 을 상실하거나 다른 공직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경우가 5곳이나 된 다.

구체적으로 공모 대상 지역구는 광 주·전남지역에서 광주 남구, 함평·영 광·장성, 순천, 나주·화순 등 4개며

서울은 마포를, 강남을, 노원갑, 성북 을, 구로를 등이다. 또 부산 사하를, 인천 부평을·계양갑, 대전 대덕, 경기 광명갑·광택을, 충북 청주 상당, 충남 부여 청양, 천안갑, 경남 양산, 제주 서귀포 등도 공모 대상 지역구로 한 나라당 강제지역도 상당수 포함됐다.

때문에 내년 공천에서 지역구를 노 리는 남녀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. 이들 중 일부는 공직선 전 의원들의 지역구인 강남을을 비롯해 부 산 사하를, 경남 양산, 경기 광명갑 등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지역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.

다만, 인재영입위원회와의 ‘기능 충출’ 여부를 어떻게 조할 지가 과 제다. 당협위원장을 공모해 선출하고

도, 나중에 외부인사를 영입해 전락 공천을 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. 조강특위도 이 부분의 민 감성을 감안해 당 지도부 및 인재영 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 하기로 했다.

또 다른 문제는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에 경쟁력 있는 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다. 특히 광주·전남지역에 서는 경쟁력 있는 당협위원장 구하기 가 쉽지 않아 나중에 인재 영입을 통 한 공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 다.

이에 대해 조직강화특위 김문일 위 원은 “광주·전남 일부 지역에는 6명 이상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 는 등 분위기는 좋으나 실제 얼마나 응모할지는 미지수”라며 “이번 당협 위원장 선정을 위한 공모와 내년 총 선 전 인재 영입을 통해 지역만이 만 족할만한 인재를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/\*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## 5당 대표 오늘 회동... 논의 여부 촉각

한진중공업 사태가 지지부진한 모 습을 보이고 있는 야권 통합 및 연대 논의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.

민주당 손학규, 민주노동당 이정 희, 진보신당 조승수, 창조한국당 공 성경,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 당 대표는 오는 3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 에 모인다.

이날 회동은 한진중공업 사태 협력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협의하는 것이 1차 목적이지만 오랜 만에 야당 대표들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에 서 야권 통합 및 연대 논의의 활로를 모색할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 이 제기되고 있다.

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, 3일 회동 을 앞두고 야당들의 정책 공조도 힘

을 받고 있다.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9일 제안한 야당 정책협의회 구성 제안에 타 야당들이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.

민주당은 통합 논의를 위한 야당 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화답이 민노당 의 정책협의회 구성이라고 받아들여 는 분위기다.

진보신당 관계자도 “정책협의회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제안했던 것”이 라며 “빠르면 빠를수록 좋다”고 말했 다. 이에 따라 야권이 정책 연합이나 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 내주 에 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.

그러나 야당들이 한 자리에 모이더 라도 연대의 방식이나 범위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

가시적 성과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.

민주당은 당대당 통합 방식의 연합 정당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야당 들은 민주당이 합당이 아니라 정책공 조를 통한 선거연대의 대상이라고 분 명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.

현재 민노당, 진보신당, 국민참여 당 등 이른바 진보진영의 ‘소통합’ 논 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소통합 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민주당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 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.

민주당 관계자는 “3일 회동을 계기 로 야권 통합 및 연대 논의가 본격적 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 며 “특히, 정책 공조는 통합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” 고 말했다.

/\*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

이현동 국제청장(왼쪽 두번째)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왼쪽부터 조현호 경찰청장, 이현동 국제청장,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, 이귀남 법무장관, 임채민 국무총리실장. /\*연합뉴스

## “당국이 ‘저축銀 비리’ 키웠다”

### 국조특위 질타... “김형식, 청문회에서 의혹 밝혀야”

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2 일 기관보고에서 당국의 총체적인 부 실 대응이 저축은행 비리를 키웠다고 질타했다.

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총 리실·감사원·법무부·국세청·경 찰청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고 감 사원의 허술한 후속 조치, 세무당국 의 탈세 방조, 검찰의 ‘바지사 수사’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.

특위 위원들은 감사원에 대해 이명 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4일 당시 김형 식 감사원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관련 수사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 지를 집중 질의했으며, 대통령의 정확

한 발언 내용과 감사원의 후속 대응을 규명하기 위해 김형식 국무총리를 증 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.

특위 위원들은 또한, 2008년 울산 지검의 부산저축은행 ‘영남 알프스클 프장 사업’ 수사에서 처벌 수위를 낮 춘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.

민주당 신건 의원은 “검찰은 사태 가 불거지기 이전에 지방 저축은행에 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 로 저축은행이 개인의 사금고로 전락 했다”고 주장했다.

또한,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

수료 명목으로 7000억원대 금융자문 수수료를 챙겼지만 부산지방국세청 이 부가가치세 10%를 부과하지 않아 700억원대 탈루를 방조했다고 여야 의원들은 지적했다.

민주당 우재창 의원은 청와대 김두 우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 회장을 비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 다.

미래희광연대 김경 의원은 “모 감 사위원이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 ‘증 인에서 빼달라’고 요구하기도 했다” 며 감사원에 주의를 촉구했다.

한편, 이날 국정조사 특위가 관보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‘저축은행 사건’의 주심을 맡았던 하 복동 감사위원이 저축은행에 11억원 대의 가액을 예치했던 것으로 드러 나, 심의 위원으로서 자격 요건에 어긋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.

/\*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## 이정현 광주출마 선언에 박근혜 “꼭 당선돼야죠”

### 李의원 “10월 출마기념하며 초정할 생각”

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 정현 의원의 광주 출마 선언에 대 해 “꼭 당선돼야죠”라고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의원은 2일 CBS라디오 ‘김 현정의 뉴스쇼’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가 전남 자신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.

그는 이어 “나는 지난 3년 동안 도 아니고 95년도, 다시 말하면 황색플롱이 일 때부터 한나라당 이므로 광주에서 출마를 했었고 2004년 탄핵 역풍 때도 당당 하게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출마 를 했다”며 “그러나 이제는 분명 하게 당선을 목표로 나간다”고 말했다.

이 의원은 또 박 전 대표와 함께 호남에 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 해 “내 문제가 아니라 박 전 대 표는 대표 시절부터 자주 갔던 호

남지역을 방문할 것이고, 그런 기 회에 내가 출마기념회를 하거나 사무실 개소식을 할 때 시간이 된 다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”고 답했다.

그는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출 마기념회에 박 전 대표를 초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.

그는 특히 홍준표 대표의 ‘호 남 배재론’에 대해 “호남에 대 해서 더 많은 관심, 더 많은 배려, 더 많은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, 더 좋은 후보를 찾아서 한 번 해 볼 생각은 않고 (총선이) 9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호남 은 당선가능성은 없다고 포기 를 하고... 저는 그 패배주의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대단히 큰 패착을 했다고 본다”고 비판했 다.

/\*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# 손학규 민생행보 일주일만에 재개

### ‘주거복지지원법’ 제정 추진

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중부권 기습폭우로 잠시 중단됐던 민생 행보를 일주일 만에 재개했다.

손 대표는 “동고동락 민생실천” 행보 4주차인 이번 주 테마를 주 거 복지라고 잡고 2일 전국 주거복 지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.

민주당 주거복지TF 주최로 열 린 이날 행사에는 손 대표를 비롯 해 박재천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위원장, 박영선 정책위의장, 유선 호·주승훈·강기정·이찬열·전현 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.

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“살 집 이 있다, 없다 하는 것은 행복의 기본적인 기준”이라며 “주거복 지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주 거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”고 밝혔다.

그는 “국가는 적극적으로 주거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”며 “우리

당에서는 임대료 보조제도(주택 바우처)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 고,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적극 실 현하겠다”고 밝혔다.

그는 또 “장기·공공 임대주택 을 활성화시켜서 주거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 고 전·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”고 덧붙였다.

민주당은 이날 영영별 정책 과 제로 취약계층 시민을 위한 전세임 대주택 공급 확대, 장애인에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, 주거복지센터 제도화, 주택 개량 등을 제시했다.

한편, 손 대표는 다음주 ‘재벌 개혁과 노동 문제’를 주제로 ‘동 고동락 민생실천’ 마지막 주 일정 을 소화한다.

/\*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**대한민국 최초 무료음성커뮤니티**

진실입니다!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체팅서비스 이번 옛말이 되었습니다.

정말 공짜입니다! 정보이용료도 없고 회원가입비도 없습니다.

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, 전화요금도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. 직접확인하세요!

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. 오 사 이 오 **1688-5425**

보급요금 >>> 11번 음성소통 >>> 07번 여성보통 >>> 12번 연인보통 >>> 09번 매너남성 >>> 10번 1:1 대화 >>> 19번

14년 전통 하트톤 **가입문의 062-526-7958** 전국 최저요금제

여성 무료 **080-331-7958**

365일 24시간 비공개 상담

소자본, 무점포,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**010-3608-2888**

**전남·북 출장파티 전문업체**

- 출장뷔페
- 도시락
- 식판급식
- 성당
- 교회결혼식뷔페
- 야외결혼식뷔페
- 칠순/팔순잔치
- 체육대회
- 야유회
- 종친회
- 기업체 각종행사

**에이 파티외식산업**

본사 ☎ (062)226-0086 | H.P. 010-4601-3222

**www.party-food.co.kr**

**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**  
스피치·연설·리더십·설득력 향상

**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**

- 1 교육기간 : 2011년 9월 9일(금) ~ 2012년 6월말일까지 : 1년과정 \* 매주 금요일 저녁 19시~21시 교육
- 2 교육목표 :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.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
- 3 모집인원 : 50명 선착순 \* 지원대상 : 각종선거출마예정자, 전문직 및 직능별중성자, 남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(내성적인 성격), 기타 일반인, 직장인, 주부, 학생 등
- 4 교육과정 : 대화 및 연설기법, 라디오/TV 스피치 요령,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,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, 발성 훈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,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,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,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
- 5 교육요령 : 실습 위주 교육(실습70%, 이론30%) \*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% 완성시까지 실습 위주 지도
-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: \* 등록기간 : 2011년 8월 1일(월) ~ 8월 31일(수) \* 등록시간 : (월) ~ (금) 10:00~17:00 \* 등록장소 :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(호실관 4층)
- 7 등록방법 (수강료 : 1년 400,000원 - 분할납부 : 학기당 200,000원) \*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\* 예금계좌 : 광주은행 134-107-109843(예금주 : 광주대 평교원)
- 8 수료 후 특전 :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, 스피치 지도자 자격증 수여,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, 원우회 월 1회 모임

**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**  
TEL (062) 670-2167, 2168 FAX (062) 670-2475  
지도교수 : 010-5692-9998

**조선대학교 ·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**

**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!**  
관상학: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·동강대학교

**관상이란?**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. 그 사람의 지난과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.

**성공하기 위해서는?**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민관계의 결과물이다. 손자병법에 “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” 라고했다.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“낮 놓고 -자도 모른다”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.

**동강대의 귀곡사주란?**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!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망갔다 하여 이름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.

2011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(15주강)					
대학교별	교육과정	기간 및 요일	강의시간	수강료	기관전화
조선대학교	관상학 초급	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	19-22시	150,000원	230-7700-2
	관상학 고급	9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	19-22시	150,000원	
동강대학교	사주명리초급	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	19-21시	120,000원	520-2516
	사주명리고급	9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	19-21시	120,000원	

● 조선대 등록 - 8월 1일 부터 ~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
- http://www.chosun.ac.kr/lifelong  
- 광주은행 004-107-000152(예금주 : 조선대 평생교육원)

● 동강대 등록 - 8월 1일 부터 ~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

**장학특전** 노력자, 장애자, 생활수급자,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

**교육전담강사**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

**문의: 각대학교 전화,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-3644-7232**